

| 9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350.19  | ↑ 코스닥       | 701.21   |
|                 | (+60.22) |             | (+12.27) |
| ↓ 금리 (미국 9년)    | 3.577    | ↓ 환율 (원/달러) | 1243.50  |
|                 | (-0.104) |             | (-25.10) |

【뉴스】  
복지부 등 업무보고  
尹 “보편복지에  
과학적 접근 필요”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HD현대가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 선보인 미래선박을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HD현대

## 자율주행기술·무인선박·UAM·선없는TV 등 경쟁력 입증한 K산업 해외서 잇단 ‘러브콜’

모처럼 성대하게 열린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3'에서 국내 기업들은 수많은 '짜인'을 받아내며 다시 한 번 수준 높은 경쟁력을 확인했다.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는 물론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올해 CES2023를 통해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만나 다양한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자율주행 분야가 대표적이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개발을 포기하면서 위 기론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앞다퉀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CES서 해외기업들과 다양한 논의**  
LG전자 전장기술, 마그나와 협업 현대모비스-퀄컴 자율주행 맞손 HD현대, ABS와 무인선박 가속화 현대차-MS美 UAM 상용화 준비

LG전자는 이번 CES2023를 기점으로 파워트레인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뿐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보하며 완성차 업체 수준 경쟁력을 완성했다. 마그나와 파워트레인 부문 합작법인에 이어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한 것. 조주완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차량에도 OEM을 공급할 수 있을만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경쟁력을 자신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도 역대 최대 규모 부스에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코너모듈 등 신기술로 현대자동차 빈자리를 채웠다는 평가, 퀄컴과 자율주행 3단계 구현을 위한 통합제어기를 개발하는 MOU

를 체결하며 반도체 기술 공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그룹도 미국선급협회(ABS)와 자율운항 선박 솔루션 개발과 실증에 협력하는 MOU를 맺었다. HD현대가 자율운항 선박을 미래 먹거리로 힘을 실어온데 더해, 이번 MOU를 통해 본격적으로 무인 선박 개발을 현실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HL클레무브도 미국 소나투스사와 차세대 전장 아키텍처 기술 개발을 위한 MOU에서 서명했다. HL클레무브는 HL그룹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회사인 소나투스사와 함께 통합 제어기 등 신규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장 아키텍처를 개발하는데 힘을 합칠 계획이다. HL만도도 이스라엘아그거스와 자동차 보안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CES2023에 불참한 현대차는 오히려 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겨냥했다. 항공 모빌리티 부문 독립 법인 슈퍼널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2028년 미국에서 UAM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자율주행 4단계 '로보택시' 상용화를 준비 중인데 이어, 한 발 앞서 자율주행 항공모빌리티까지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 시대를 대비한 협업도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독일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및 에스토니아 엘코젠과 MOU를 통해 선박용 대용량 고체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벤처캐피털 플러그 앤 플레이(PhP)와 친환경 스타트업 발굴을 함께 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깜깜이 회계’ 차단...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고용부 업무보고

임금격차해소 상생임금위 이달 발족 기업내 임금정보시스템 연내 설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상생임금위)가 이달 중 발족한다. 노사는 물론 노동 전문가들이 참여해 임금체계 관련 법과 제도,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2면>

노사가 필요한 임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내 '임금정보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은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

부에 공표하는 '회계공시시스템'도 3분기 내 구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안을 업무 보고했다.

상생임금위는 기업들 간,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1월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노사를 비롯해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상생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진행될 예정이고, 정부는 직접 참여보다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

가기구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임금실태 조사와 분석,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를 설치, 운영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는 '회계공시시스템'도 올 3분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취지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투(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인천공항 이용객 3년 만에 반등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탑승수속을 하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은 1786만 9000여 명으로 2021년 319만 8000여 명 대비 460% 증가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용객 수도 3년 만에 반등했다. /뉴스

## ‘가치소비’ 호응하는 유통가, 전문관 신설 바람

MZ세대 미닝아웃 확산에 잇단 론칭 11번가 'SOVAC마켓' 거래액 120억 이마트 '자연주의', 상품 라인업 강화

유통업계의 '가치소비' 전문관 론칭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벌어진 후 기후위기와 동물권, 소외계층 등을 향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자기 전시에 능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로 드러내는 '미닝아웃(Meaning Out)'이 확산하자 여기에 기업이 호응했다.

11번가는 지난해 가치소비 전문관을 통해 백억대 매출을 올렸다. 9일 11번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상품 전문관 'SOVAC마켓'의 지난해(1월1일~12월

29일) 누적 결제 거래액이 120억원을 기록했다. 고객 수만 27만 명에 이르며, 셀러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SOVAC마켓은 11번가가 2021년 SK그룹의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와 협업해 연 사회적기업 상품 전문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셀러로 입점해 다양한 가치소비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마트는 친환경·가치소비 브랜드 '자연주의'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리브랜딩과 리뉴얼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주의는 지난해 7월부터 원재료부터 제조과정, 포장재까지 가치소비를 고려해 개발한 가공PL을 선보여 현재 25종을 운영하고 있다.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리브랜딩을 하고 상품 구색을 늘렸다. MZ세대와 프리미엄 상품 선호와 가

치 소비 실천을 동시에 공략한 곳도 있다. SSG닷컴은 지난달 22일 랩프로운 다이아몬드 공식브랜드관을 열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져 친환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성분, 굴절률, 분산도, 경도 등 특성이 동일하면서도 30~70% 저렴하고,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 물질이 없고 비윤리적 노동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가치소비 전문관과 캠페인 등이 확산하는 데에는 달라진 사회의 인식과 경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가 갈수록 기업 윤리에 예민한 고객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비 성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감찰조사팀 신설에 사이버사령부, 또 이전  
▲ 용산발 압박 속 고민 깊어지는 나경원... 출마 결심 굳히나 /사진 뉴스

▲ 野, '尹·김건희 풍자' 국회 사진전 철거에 '야만적 행위'  
▲ 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 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 특검,故이예람 성추행 중사 '2차 가해' 혐의 징역 2년 구형  
▲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사진 뉴스